

# 예언 오디세이

## 5과: 잃어버린 자들의 운명

**놀라운 사실:**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의 주민들은 이미 많은 경고를 받았었다. 서기 62년경, 부와 향락으로 인해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이 이탈리아의 휴양 도시들은 지진으로 인해 심하게 흔들렸다. 그 후 17년 동안 화산 주변에서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했고, 일부 지역의 샘과 호수는 말라버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서기 79년,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해 두 도시는 용암과 재에 묻히고 말았다. 수천 명이 사망했고, 그 후 1,600년 동안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은 시간 속에 갇혀 있었다. 1748년에 시작된 발굴 작업을 통해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당시 로마의 생활상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고고학자들은 도시의 화산재 층에 난 구멍들에 석고를 주입하여 발굴했고, 굳은 화산재 속에 묻혀 있던 시체들의 뒤틀린 형태가 세상에 드러났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모든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재를 비처럼 내리실” 심판의 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다고 증언한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시 11:6).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계 20:15).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악인의 형벌에 관한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을 알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주제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심하게 왜곡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옥 불의 주제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접 자신의 성경을 찾아서 빈칸의 단어를 채우라...

## 1. 악인의 멸망의 예로 제시된 두 도시는 어디인가?

**벧후 2:6** \_\_\_\_\_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유다서 1:7** \_\_\_\_\_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_\_\_\_\_ 반응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참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악한 도시를 “영원한 불”, 즉 지옥에서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과 같은 종류의 불로 멸망시키셨다. 사해 옆에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했으며, 우리는 그 도시들이 오늘날 여전히 불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2. 악인들은 언제 지옥 불에서 멸망하는가?

**베드로후서 2:9**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_\_\_\_\_ 날까지 지키시며

**요한복음 12: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_\_\_\_\_ 그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3:40-42**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_\_\_\_\_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참고: 위의 성경절들은 악인이 죽을 때가 아니라 종말, 즉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으며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심판에서 그의 사건이 결정될 때까지 아무도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매우 공평한 처사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고 말씀하셨을까?

### 3. 죽은 악인들이 아직 지옥에 있지 않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5:28, 29**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_\_\_\_\_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21:30, 32**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그를 \_\_\_\_\_ 떼어 가고 사람이 그 \_\_\_\_\_ 지키리라

참고: 성경은 죽은 악인들이 천년기 말에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계 20:5). 그들은 그들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옥 불이 아닌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 4.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운명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3:16**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_\_\_\_\_ 않고 \_\_\_\_\_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23** 죄의 삯은 \_\_\_\_\_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_\_\_\_\_

참고: 죄에 대한 형벌은 지옥 불에서 영원히 살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그와 정반대인 지옥 불에 의한 영원한 죽음과 소멸이다. 우리 모두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인해 첫 번째 죽음(히 9:27)을 당하지만, 성경은 악인이 '불못'에서 '둘째 죽음'을 당한다고 말한다(계 20:14). 모든 사람은 인류를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첫 번째 죽음에서 부활한다. 다만 영생의 상급을 위한 부활이나, 아니면 영원한 소멸의 형벌을 위한 부활이냐의 차이이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에서는 부활이 없다. 그것은 최종적이다.

또한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로 오해되고 있는 연옥의 개념은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성경은 영생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두 가지 선택, 그리고 두 가지 궁극적인 운명만을 가르친다(신 30:15).

### 5. 악인은 지옥 불에서 어떻게 되는가?

**시편 37:10, 20** 잠시 후에는 악인이 \_\_\_\_\_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와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_\_\_\_\_

**말라기 4:1, 3**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_\_\_\_\_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_\_\_\_\_ 같으리라

참고: 지옥불에 있는 악인들은 완전히 소멸되어 재만 남게 될 것이다.

## 6. 지옥 불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벧후 3:10**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_\_\_\_\_  
그 중에 있는 \_\_\_\_\_ 드러나리로다

**요한계시록 20:9** 그들이 \_\_\_\_\_ 날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_\_\_\_\_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참고: 죄와 악을 사르는 지옥 불은 지상에 있을 것이다. 불의 호수가 지구를 삼킬  
것이다.

## 7. 사탄은 지옥 불을 담당하는 존재인가?

**요한계시록 20: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_\_\_\_\_

참고: 아니다! 사탄은 지옥불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불길은 마침내 그를 “땅 위의 재”로 만들고, 그가 선동한 반역의 결과로 인해  
“밤낮으로” 고통을 겪은 후, 궁극적으로 “소멸”되어 “영원히 없어질” 것이다(시 104:35:  
겔 28:18, 19).

## 8. 지옥 불은 꺼질 것인가?

**이사야 47:14** 보라 그들은 초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솟불이 \_\_\_\_\_ 그 앞에 앓을 만한 불도  
\_\_\_\_\_

참고: 죄와 죄인들이 멸망한 후에는 결국 불이 꺼질 것이다. 지옥불은 오랜 세월 동안  
타오르지 않는다. 주님께서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말 4:3)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모든 것을 태운 불은 결국  
소멸될 것이다. 만약 지옥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죄를 영원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하나님의 뜻은 죄를 영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격리하고 없애시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한다.

9.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성경절은 지옥 불이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마태복음 3: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_\_\_\_\_*

참고: 그렇지 않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태울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일단 탈 것이 다 타고 나면 불은 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17장 27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꺼지지 않는 불”을 지피실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선언한다! 바벨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대하 36:19, 21)는 역할을 감당했다. 예루살렘의 심판의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때까지 꺼지지 않았고 결국 꺼졌다. 성경에 “꺼지지 않는 불”로 묘사된 불이 오늘날까지 계속 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다.

10. “영원한 불”이라는 표현은 끝이 없다는 뜻이 아닌가?

유다서 1: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_\_\_\_\_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참고: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이 구절은 소돔과 고모라가 지옥 불로 여겨지는 “영원한 불”로 멸망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사해의 도시들은 지금 불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재로 변했으며(벧후 2:6), 이것이 바로 영원한 불이 하는 일이다. 영원한 불은 그 결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불이다.(이 과의 끝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의 보충 자료를 참조하라).

11.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악인들이 “세세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이는 끝없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가?

요나 2:6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_\_\_\_\_ 막았사오나*

참고: 요나는 사흘 밤낮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욘 1:17), 그 시간이 “오래도록” 지속되었다고 표현했다. 여기서 “오래도록”으로 번역된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영원한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이다. 아마 그에게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세세토록“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이온“은 “영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무제한적인 불특정 기간을 나타낼 때 쓰이지만, 종종 제한적인 시간을 가리킬 때에도 사용된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최소 50회 이상, 끝이 난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종신토록”이라는 표현은 충실한 노예의 삶을 묘사하며(출 21:6), 다른 곳에서는 “영원히”라는 표현이 10대와 병행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신 23:3). 궁극적으로 사람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영원”이라는 표현은 “그가 살아있는 한”을 의미한다(삼상 1:22, 28).

## 12. 지옥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모두 파괴되는가?

**마태복음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_\_\_\_\_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고: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겔 18:4, 20)고 두 번이나 말씀하신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악인은 지옥 불에서 영혼과 육체 모두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 13. 지옥불은 누구를 위해 불붙게 되는가?

**마태복음 25: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_\_\_\_\_ 그 사자들을 위하여 \_\_\_\_\_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참고: 불의 목적은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 그리고 죄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죄가 멸망하지 않으면 다시 우주를 오염시킬 것이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를 저버리며 죄를 고집하고 죄의 재앙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들은 멸망해야 할 것이다.

## 14. 성경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이사야 28:21** *대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_\_\_\_\_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참고: 하나님은 결코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길 원치 않으신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그분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겔 33:11)고 호소하신다.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지옥 불은 하나님의 “특이한 행동”이라고 불린다. 결국 잃어버린 자들 또한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음을 인정할 것이다(롬 14:11).

**15. 죄와 죄인이 멸망한 후에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

**베드로후서 3: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_\_\_\_\_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_\_\_\_\_ 다  
지나갔음이라

참고: 하나님께서는 이 정화된 세상의 잿더미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생명체에게 기쁨과 평화와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영원토록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16. 죄의 문제는 다시 일어날 것인가?**

**나훔 1:9**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_\_\_\_\_ 아니하리라

**이사야 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_\_\_\_\_ 마음에  
생각나지 \_\_\_\_\_ 것이라

참고: 죄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다시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17. 옴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 어떤 예리한 질문을 던졌는가?**

**옴기 4:17**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_\_\_\_\_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_\_\_\_\_

참고: 만약 당신의 아들이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겠는가? 아마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가 불 속에서 끔찍한 고통 속에 타는 형벌을

받는다면, 그러한 벌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합당한 형벌과 잔인한 고문은 구분되어야 한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고문당하는 것을 결코 참으실 수 없다. 그것은 모든 최악의 전쟁과 잔혹한 행위보다 더 끔찍한 일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 불을 준비하시는 분이신가? 절대 아니다! 이교적 사상인 영원한 지옥은 사랑과 공의라는 그분의 성품에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 나의 결심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새 왕국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이 예비하신 저택에 거주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지금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겠는가? 답: \_\_\_\_\_

# 추가 학습

## 부자와 나사로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다. 예수님이 “지옥”으로 사용한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고통의 장소인 “하데스”였다. 듣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잘 알려진 신화를 사용하여 요점을 설명하신다는 것을 이해했다. 누가복음 16:19-31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비유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가? 아니다.
-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을까? 아니다.
- 물 한 방울이 지옥에서 불타는 사람의 혀를 식힐 수 있을까? 아니다.
- 아브라함이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를 결정하는가? 아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최종적 운명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실현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은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라고 선언한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성경을 잔치 때처럼 풍성하게 소비하는 유대 민족을 상징한다. 문 앞의 거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이방 사람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눅 16:31)는 말씀으로 비유를 마무리하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나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셨지만, 대부분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요 12:9~11).